다산포럼

김정남

아름답게 떠나는 것에 대하여

하마 마지막 단풍을 놓칠세라 10월의 마지막 주, 혼자서 북한산에 올랐다. 산 아래 계곡 쪽에는 더러 핏빛 단풍이 농염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위쪽으로 갈수록 메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다. 만추(晩秋),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임기 말 말뚝박기와 대못질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바꿔 타면서 보니, 광화문 교보빌딩에는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그것은 도종환의 시 '단풍드는 날'의 첫 연이었는데 뒤에 찾아낸 그의 시는 이렇게 이어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放下着)
제가 키워 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흔히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 말하지만, 가꾸어온 것을 거두어들이는 행복감보다는,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는 감상을 더 진하게 안겨주는 것이 가을이다. 가을은 확실히 떠나는 일, 헤어지는 일을 한번쯤 생각하게 해주는 계절이다. 그런 점에서 사색하는 계절이요, 철학하는 계절이다. 봄에 출가(出家)한 사람보다 가을에 출가한 사람이 중(僧)으로 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법정(法頂)의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봄의 분위기에 들떠서 한 결정보다는 가을의 고뇌와 사색 끝에 내린 결단이 더 단단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사람도 저와 같았으면. 그러나 사람들의 떠남에는 미련과 아쉬움이 너무도 많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우리를 착잡하게 한다. 지난 9월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해서는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다"고 하더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임기 마지막 날 끊은 어음이라도 후임 사장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른바 취재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도 말뚝박기와 대못질을 거듭하고 있다.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어음 쓰고 도장 찍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사안이라면 말뚝 박고 대못질하지 않아도 역사와 국민이 지켜낼 것이다. 말뚝 박고 대못질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란 청소하고 가는 사람

지도자란 그 시대, 그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가는 사람이다. 박힌 것이 있으면 뚫고,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치워주고, 발목 잡는 것이 있으면 뿌리쳐 주고, 그리하여 문제를 남겨놓고 떠나기보다는 뒤끝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떠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떠날 때는 뒷사람에게 "나를 딛고 일어서라"는 말 한마디쯤 남기고….

그의 억하심정(抑何心情)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바람처럼, 물처럼, 자연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떠났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던가.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정영재

지방의 남북교류는 통일의 디딤돌이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류가 가지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줄일 수 있으며, 남북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복합되고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화해협력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협력의 사회문화, 체육 및 경제분야로 가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류분야를 선정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단계는 지자체간 직접교류가 어려우므로 민간 기구를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자체간 직접교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인력 전문성 확보와 재정안정화가 중요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정보와 협상 능력을 가진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시·도민 차원의 대중적인 기금 모금 운동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의 모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출연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업 및 시·도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중심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을 세워가고 있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이번 평양 발효콩공장준공식 직항로 방북은 꾸준히 해온 결과이며, 남북의 신뢰를 보여주는 성과다. 광주시도 지난해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를 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전남지역의 노력은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보다 지속화하고 체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상임이사〉

찰칵! 동물세상

코브라 생 쇼

영화나 책에는 코브라나 아나콘다라는 뱀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동물로 묘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뱀 같은 동물들을 모두 잡아야 한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예전 농사일을 하다 뱀을 발견한 주민들은 가차 없이 삽이나 낫으로 잡아 없애곤 했다. '살모사' 같은 독사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독사(살모사류) 들의 경우 특별한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물려도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벌에 쏘여서 죽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가 쉽지 않다. 일곱 발자국도 가기 전에 죽는다는 '칠점사(까치살모사)' 이야기는 거의 전설에 가깝다.

최근 사람을 판단할 때 남에게 들은 소문이 직접적 관찰과 판단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긍정적 소문보다 부정적 소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조금 과장하면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보면 지나친 것일까.

동물들은 더할 것 같다. 한번 '찍힌' 동물들은 도저히 '루머'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뱀 뿐 아니다. 멧돼지·고라니·청솔모까지 최근 유해조수로 '찍힌' 동물들의 생사는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코브라 역시 사람을 피해 다니는 뱀이다. 쉬고 싶은 것 같은데, 쇼맨은 집요하게 괴롭힌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험을 좌초한다. 저러다 물리면 또 억울한 코브라 탓이나 할 것 아닌가.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교회 세습, 기독교 병들게 한다

교회에 다닌지 10년이 넘는 독실한 신자인데,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 주는 종교인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

자산가치 몇 천억, 몇 조원 씩하는 대기업들조차 자식에게 대물림 안하고 기업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마당에 종교 재산을 사유물처럼 자식에게 대물림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

교회는 혈연의 종교가 아니다. 목사의 직분이 아닌 특정 직책을 세습시키는 것은 성경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진 2세 목사라해도 그 자신의 새로운 목회의 길을 걷는게 옳다고 본다.

세습은 한국교회의 물량주의적 교회 본모습을 드러낸 세계적 웃음거리다. 지금 한국교회의 비대화와 사유화 현상은 세계 기독교계에서조차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이같은 계획이 있는 목자와 교회가 있다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진보라·목포시 복만동

농촌학생 수능장소까지 차별… 郡지역서 시험 볼 수 있어야

오는 11월 15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당수 수험생들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학생들과 다르게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도시 학생들의 경우 자기가 평소에 생활하던 집에서 마무리 정리를 끝내고 아침에 엄마가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은 뒤 아버지가 자가용으로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농촌학생들은 하루전에 집을 떠나 고사장 근처 여관에 가서 묵어야 한다.

여관에서는 마무리 정리가 될 리도 없고 잠자리가 바뀌어 잠도 잘 오지 않으며 다음날 혹시 늦잠을 자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다. 다음날 아침식사는 고사하고 부랴부랴 일어나 고사장까지 헐레벌떡 달려가기 일쑤다.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벽지는 물론 군 단위 지역에서도 시험을 현지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환경·시설·학원 등도 모두 부족한 시골 학생들이 수능장소까지 차별당해서야 되겠는가.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사설

부패·자질 부족에 의정비 올린 지방의원

주민 정서를 외면한 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지방의원 가운데 일부가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잃은 언행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지자체 재정이야 어찌 됐건 연봉을 대폭 올려달라고 생떼를 부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등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원들의 꼴불견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한심하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비리행태는 다양하다. 각종 지자체 공사에 관여해 거액의 사례비를 챙기는가 하면 한 지방의회 의장은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유통시켰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해외연수비를 과다하게 수령했다가 말썽이 나자 반납한 지방의회도 있다. 더욱이 일부 의원은 반납한 연수비를 다시 받아 해외여행을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또한 집행부에 인사청탁을 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입에 담지 못한 폭언을 해 말썽을 빚은 의원도 있다.

지방의원들의 행태와 관련 그동안 가장 많이 지적돼온 것은 자질부족이다.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버거운 재정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를 대폭 올린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소인배나 다름없다. 게다가 의정활동보다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엉뚱한 일에 열중하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부족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 본연의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함량미달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에만 맡기기에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월급은 대폭 올려 달라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권 개입에만 신경 쓴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산행문화 실천해 무등산 쓰레기 줄이자

광주 무등산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난 10월까지 수거한 쓰레기가 82.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7t에 비해 17% 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돼 반갑다.

무등산 쓰레기는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3년 251.8t에 달했으나 2004년 208.2t, 2005년 108.3t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11.4t으로 조금 늘었지만 호수생태공원 준공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한다. 올 수거량은 4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더구나 무등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쓰레기 감소세는 뚜렷하다. 무등산 등산객은 2004년 667만2천여명, 2005년 693만1천여명, 지난해 851만1천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시민은 물론 부산과 대구, 서울 등 전국에서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이 광주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빼어난 경관과 운동 및 휴식공간 제공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는 광주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다. 이처럼 소중한 무등산이 쓰레기로 오염되어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등산은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함부로 버린 병과 비닐봉투 등은 수십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산야를 병들게 하고 도토리와 밤 등의 무분별한 채취는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비지정 등산로로 산행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다.

무등산 사랑이나 보호운동이 거창스러운 것은 아니다. 쓰레기 되가져 가기, 자가용 이용하지 않기, 금연 등 올바른 산행문화를 실천하면 충분하다. '일등광주, 일등 시민'을 지향하는 마당에 시민 스스로 산행질서를 더욱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명장과 팀워크

축구 경기는 신체 부위 중 가장 부정확한 발로 하는 경기다. 발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선수의 실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미국 프로축구 LA갤럭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데이비드 베컴은 세계 최고의 오른발을 가진 사나이로 꼽힌다. 오른발의 달인이란 찬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택배 크로스'를 하는 선수라는 우스갯소리도 듣는다. 오른발 슛의 속도가 시속 157㎞에 달한 때도 있었는데, 축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는 엄청난 부까지 축적해 월드스타로 대접받고 있다.

그를 오늘의 축구영웅으로 키워낸 인물이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다. 13번째 생일날 그는 퍼거슨의 손에 이끌려 맨유의 유소년팀에 입단했고 17세가 되던 1992년에 성인무대에 섰다. 그후 퍼거슨의 지도로 그 팀에서만 11년동안 400경기에 85골을 터뜨리며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명장 퍼거슨은 애제자이자 자식처럼 소중한 베컴에게도 가혹했다. 불건전한 사생활로 불성실하고 허황된 스타의식에 젖어 팀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며, 팀 사기를 저해하는 베컴을 용서하지 않았다. 늘 못마땅해하던 스승은 축구화를 차 베컴의 눈두덩이를 찢었고 베컴은 결국 얼마 후 짐을 싸 레알 마드리드로 옮겼다.

최근 아시안컵축구대회 기간중 '음주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선수들에게 1년간 대표선수 자격정지라는 벌이 내려졌다. 축구팬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축구협회를 비난하고 있다.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정강이 보호대를 내팽개치며 심판에게 항의한 선수에게 프로경기 1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퍼거슨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냉혹하게 벌을 가해 기강을 바로잡는 그를, 명장으로 존경하는 까닭을 생각케 한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